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3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	봉헌 (211)	성체 (163)	파견 (6)
---------	--------	----------	----------	--------

제1독서 | 코헬 1,2; 2,21-23

화답송 |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나이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나이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 콜로 3,1-5.9-11

복음환호송 | 마태 5,3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루카 12,13-21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7/28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8/4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8/11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8/18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34	\$	\$3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20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8/24	유 요한/ 유 마리아
7/27	손 아놀드/ 손 쟈마	8/31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8/3	이 글라라/ 장 글라라	9/7	홍 마르코/ 홍 아녜스
8/10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9/14	김 요아킴/ 고 안나
8/17	이 요한/ 이 마틸다	9/21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내 발을 씻기신 예수, 그 후 30년

-신상옥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루카 12,15)

찬미 예수님!

저의 삶을 바라봅니다. 제 작품‘내 발을 씻기신 예수’를 노래하면서 성가를 중심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불어 넣어 주신 성소와 제가 생각했던 성소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혼란과 반항, 그 후 주님 뜻에 대한 순명 속에서 만든 노래가 ‘내 발을 씻기신 예수’입니다.

저의 활동 중 하나는 본당에서 기획하는 음악 피정이나 콘서트, 기도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특히 신부님께서 초대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신부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초대하시면 신자들이 많이 올 것이고, 즐거울 것이고, 단합될 것이고, 본당 건축 기금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하하!”

그러면 신부님께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네를 단순한 즐거움이나 본당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 슬픈 사람,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알려 주기 위해서 초대한 거라네. 그러니 그런 지향으로 노래를 찬미로 불러주기를 바라네.”

늘 제 마음에는 새로운 노래, 좋은 성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거나 공연을 잘하고, 음악 피정을 멋지게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9월 5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원회의는 오늘(8월 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오늘 부터 ‘갈라티아서’로 공부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오는 모임은 (8월 18일) 미사 후 친교실 입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결정 되었습니다** (구역장이 정정되었습니다.)

평협회장: 유요한, 총무: 김마론, 재무: 이그레이스

전교: 장클라라, 전례: 박바오로, 홍보: 박벨라데타

구역장: 1 구역장: 김헬레나, 2 구역장: 김요아킴

**남가주 성령대회(8/18-19) 티켓 판매(\$20)**

남가주 성령대회가 8/18-19 에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성당에서 50% 비용을 부담 합니다. \*티켓 구매: 박 벨라데타 자매님(홍보)\*

름 속에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되어 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만드는 노래가 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를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는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저의 삶을 인정합니다. 이또한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노래를 잘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생활 6년 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했던 기도도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였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부담감이 아니라 성체 앞에 앉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를 만들고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느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도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 이웃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훗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 주소서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리라

앞을 볼 수 없는 내 주님, 내가 눈이 되어 드리고  
들을 수 없는 내 주님, 내가 소리 되어 드리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 마음 그곳에 제가 있기를  
주님의 도구로 지금도 저를 써주소서

- 신상옥 안드레아 -